

## 강진 청소년문화센터 유치 총력

이승욱 군수 잇따라 관계부처 방문·지원 요청  
“지역 교육 환경 필수시설...국가사업 포함돼야”

강진군이 ‘국립 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 유치를 위해 분주하다. 25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승욱 군수는 이달 중순 기획재정부 방문해 국립 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군수는 특히 안도철 기재부 예산 총괄심의관과 류상민 복지안전예산 심의관을 만나 ‘국립 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의 총 사업비 341억원 중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1억원이 확

보될 수 있도록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국립 청소년문화예술센터’는 각종 문화 관련 실습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및 운동장, 공연장, 생활관 등으로 구성된다. 청소년 기반시설이 열악한 호남·영남권 청소년에게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맞춰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 청소년문화예술센터’의 설립 근거인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보면 문화예술, 과학정보, 봉사협력, 모험 개척, 직업체험, 국제교류, 건강보전, 환경보전, 자기개발의 9개 영역에 대하여 청소년 수련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전국에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을 비롯해 5개소가 운영 중이고, 추가로 3개소가 건립 중에 있다. 이 가운데 강진군이 추진 중인 문화예술분야에 특화된 시설은 없는 실정이다. 이 군수는 이달 초에도 국회와 여성가족부를 방문해 주승용 국회의장, 최재성 의원, 최성지 청소년정책관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강진군은 앞으로도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를 수시로 방문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립 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을 2020년 국가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승욱 군수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많이 부족한 현실에서 청소년 문화예술센터 건립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교육·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립 강진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 등 강진군의 현안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국회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뛰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완도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인구정책 종합 계획 수립 및 공모사업 대응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완도군 제공

### 완도 주민체감형 인구정책 제시 ‘주목’

종합계획 수립·공모사업 대응 용역 보고회

완도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인구정책 종합 계획 수립 및 공모사업 대응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신우철 군수를 비롯한 국·단장 및 부서장들과 용역수행자인 (재)광주전남연구원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군은 인구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원인 분석과 장기적 안목에서 저출산 및 인구 증가 방안을 모색하는 종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보고회에서 완도군 인구 구조 변화를 분석한 결과, 출산과 양육, 결혼 지원, 일자리 등이 미흡해 지역내 청년층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귀농·귀어 등 장년층 유입 인구에 대한 근로 및 정주여건 개선, 요보호 대상 고령 인구에 대한 사회 복지 정책 추진 및 요양 기관 확충 등이 필

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완도군은 인구 정책 비전을 ‘누구나 계속 살고 싶은 건강한 섬 완도’로 설정하고, 인구 유지 및 인구 증가 전략, 지역 체재·교류 인구 증대 등 3대 전략과 38대 중점 시책, 8대 선도 사업을 제시했다. 제시한 38대 시책으로는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 인프라 강화, 행복형 귀촌 아카데미 운영, 불편 없는 365 생활관 구축 등이 있다. 8대 선도 사업으로는 청년들의 잔류, 유입을 위한 ‘섬으로’ 프로젝트, 청년들의 교육 훈련, 창업,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컴백형 청년 귀어사관학교 설립·운영’, ‘청년 문화의 집’ 조성, ‘청년 섬 유튜브 지원 사업’, 섬 청소년들의 외국어 공부, 해외 견학, 문화적 욕구 충족 등을 위한 ‘신장보고 프로젝트’ 등을 제안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인구 정책 종합 계획은 실현 가능성,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하고 과제별 담당 부서를 지정해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완도=최규욱 기자

## 영암 연등문화축제 29일 열린다

‘마음애 자비를, 세상애 평화를’  
법요식·제등행진 등 행사 다채

영암군은 오는 29일 영암군봉축위원회 주관으로 실내체육관에서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 연등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평 균수, 군의장, 도·군의원을 비롯해 도갑사 주지 설도 스님 및 불제자, 영암군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댄스, 마술, 민요공연 등의 식전문화행사에 이어 법요식, 제등행진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삼호풍물패와 영암문화원풍물패의 경쾌한 풍물소리와 아름다운 야경이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하게 될 제등행진은 실내체육관→영암의 용소방대→김승관내과→영암군청→에이마트→실내체육관으로 이동한다.



영암군은 오는 29일 영암군봉축위원회 주관으로 불기 2563년 연등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축제 모습.

연등을 든 불제자를 비롯한 영암군민이 하나가 되는 뜻깊은 문화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연등문화축제는 ‘마음애 자비를, 세상애 평화를’ 이란 주제로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자비정신으로 극복하고 세상과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연등문화축제에 이어 오는 5월 12일 부처님 오신 날에는 월출산 도갑사 대웅보전 앞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거행된다.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행복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영암=최복섭 기자

비슷한 모든 이들에게 행복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영암=최복섭 기자

비슷한 모든 이들에게 행복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영암=최복섭 기자

### 오늘 영암 월출산 경관단지 유채꽃 축제

천황사 일원서 3일간  
‘제1회 영암 월출산 경관단지 유채꽃 축제’가 26일부터 3일간 월출산 천황사 일원의 40만평의 경관단지에서 열린다. 월출산 경관단지 유채꽃 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영암군과 농협중

앙회가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월출산 유채꽃 만개, 향기에 물들다’를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공식행사 외에도 유채꽃 사진공모전 및 전시회, 출산 야생화 전시회, 메밀비누 만들기 및 메밀배게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영암=최복섭 기자

### 완도 수산물 오늘부터 서울서 판촉행사

완도군은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 이벤트장에서 ‘완도 수산물 서울 나들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되는 완도산 해조류를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 마련됐다. 완도군은 이번 행사에 해조류와 전

복, 광어, 건어물, 완도자연그대로 미(米), 비파 등을 시중 가격보다 4~50% 낮은 가격에 선보일 예정이다. 완도군은 또 해조류와 완도 특산물 무료 시식회를 열고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사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마련한다. /완도=최규욱 기자

### 신안 천사대교 개통 효과 ‘톡톡’

중부권 4개 섬 관광객 17배 급증

음식점 등 환경개선 나서  
신안군이 ‘천사대교’ 개통 효과로 톡톡히 보고 있다. 25일 군에 따르면 이달 초 4일 천사대교 개통 이후 압해읍과 자은·안좌·팔금·암태 등 중부권 4개섬을 찾는 관광객이 평년 대비 17배나 급증했다. 지난해 신안군 중부권을 방문한 관광객은 23만여명(월 평균 1만9000명)이었다. 차량 통행량은 2018년 4월 기준 평일과 주말 평균 약 2700대였으나, 천사대교 개통 후 차량 통행량은 평일 약 1만1000대, 주말 약 1만4000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관광객의 편의와 수

요 충족을 위해 음식점 환경개선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관내 식당의 좌식 테이블을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을 위해 입식테이블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현재 압해읍과 중부권의 음식점 99개소 가운데 43개 업소가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했다. 군은 영일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테이블 교체사업비의 50%를 군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후에도 교체를 희망하는 업소에는 사업비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한곳 한곳 음식점들이 신안군의 얼굴”이라며 “1004의 섬을 찾는 모든 분들이 보다 깨끗하고 편안한 곳에서 안전하게 신안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업소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 클릭! 고향 소식



### 신안 연합학생회 리더십 캠프

신안교육지원청은 최근 신안비치호텔에서 중·고등학교 학생회 대표와 지도교사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1004섬 연합학생회 자치역량 강화 리더십 캠프’를 1박2일 진행했다.

이번 캠프에서는 권역별 연합학생회를 조직하고, 각 학교별 학생회 활동을 발표한다 이어 대학생 멘토와 지도교사가 조별활동을 도우며 유용한회의 기법을 배웠다. /신안=이주열 기자



### 영암 덕진면지역사회보장협 주거환경 개선 봉사

영암군 덕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20여명의 위원들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해 어르신들에게 환한 미소를 선물했다.

협의체는 취약한 덕진면의 어르신 체는 최근 20여명의 위원들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해 어르신들에게 환한 미소를 선물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 목포 에메랄드 퀸, 빨래방 서비스 차량구입비 기탁

목포시는 최근 지역 건설업체인 ㈜에메랄드 퀸이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지원차량 구입에 써달라며 2,000만원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했

다고 25일 밝혔다. 박승경 대표는 “지역에서 얻은 수익을 일부나마 지역민들을 위해 쓸 수 있어서 되려 기분이 좋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목포=박승경 기자